

[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

# 파키스탄 정부, 중국-파키스탄 경제특구 건설촉진



중국과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발전을 위해 경제특구(SEZs, Special Economic Zones) 건설 촉진에 나선다. CPEC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중 하나로, 중국과 동남부 및 중앙아시아 경제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 행정 관련 문제들로 그동안 경제특구 개발 확대가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의 법률 개정, 에너지 공급 확대 노력으로 경제특구 설립 활성화가 기대된다.

## 파키스탄, 전력공급 및 규제 부재로 SEZ 성장 지연

지난 2월 4일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특구(SEZs: Special Economic Zones) 설립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관계 정부부처들에 사업 전개를 저해하는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산적해 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CPEC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키스탄의 경제특구 설립은 시설, 행정 등의 내부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다. 일 예로, 주요 경제특구 우선 설립 지역인 파이살라바드(Faisalabad)에서는 이용 가능한 전력량이 오직 60MW로, 실제 필요 전력량인 360MW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 역시 가스, 전력 제공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공급 외에도 적절한 규제와 집행부 설립과 같은 거버넌스(Governance) 부재와 기관 간의 역할 중복 등이 주요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서화된 규제와 집행방식 혹은 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제특구 내의 현지 산업들의 이전을 법적으로 구속할 방법이 없어 경제특구가 투자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 정부, 에너지 공급 계획 착수로 경제특구 설립 가속화

파키스탄 경제 협력 위원회(ECC: Economic Coordination Committee)는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에 CPEC하에 설립될 경제특구에 한달 안에 일일 740 MW 전력과 1억 7,000만 입방피트(cubic feet)의 가스 공급 계획을 포함한 전기 • 가스 공급 확보 제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경제특구 신청 처리 기간을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CC는 각 지역의 경제특구에 대한 권한 확대와 투자 촉진을 중심으로 경제특구법(SEZ Act) 개정을 결정했지만, 현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경제특구 촉진 계획은 에너지 공급과 투자 확대 그리고 절차 신속화를 고려해 해결 방침을 마련 중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특구 발전 및 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관리 규제와 집행부처 확립 그리고 기관들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정리 :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출처

- The Express Tribune, CPEC Projects : ECC agrees on speeding up work on two more SEZs, 2019.02.25
- Dawn, ECC wants expedited utilities provision at special economic zones, 2019.02.05